

# “이웃이 무섭다”...불안한 시민들

### 정신질환자 방화·폭행 사건 잇따라...흥기 보여주고 이웃 협박도 광주 매달 30여건 신고...시·구청 인권 침해 등 이유 대책 소극적

광주에서 정신질환자나 질환 의심자들이 이웃에 불을 지르거나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마저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도 경남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 서 시민들이 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구별로 경찰과 행정 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집중 관리 하던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도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의 한 고시텔에 세 들어 사는 A(60)씨는 탁치는 대로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방에 보관하는 바람에 이웃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고시텔 관리인 B(50)씨는 “잡동사나와 쓰레기가 방에 쌓이면서 악취가 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말까지 들었다”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경남 진주 사건을 접한 이후엔 A씨를 볼 때면 더 큰 공포감이 물려온다”고 하소연 했다.

B씨는 “최근 고민 끝에 동주민센터에 A씨 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A씨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0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여덟 가구에 비치던 우유배달 주머니가 불에 탔다. 이날 8개 우유 주머니에 불을 지른 C(여 22)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갑자기 천사와 악마가 불을 지르라고 귀가 속삭였다. 나는 이들이 시킨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임대 아파트에 사는

D(52)씨는 북구청의 요주의 인물로 꼽힌다.

D씨는 북구 문흥동·두암동·우산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등 각종 행패를 일삼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D씨는 사회복지사가 챙겨준 김치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김치를 집어 던지려는가 하면, 통장에게 흥기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이웃 주민을 상대로도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 D씨는 지난 2월 말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를 20여 분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이웃을 괴롭히고,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는 광주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매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이웃의 난폭한 행동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가 30여 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관련 범죄도 증가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발행한 범죄현황은 ▲2016년 194건(폭력 98건·절도 78건·강간·강제추행 17건·살인 1건) ▲2017

년 214건(폭력 118건·절도 77건·강간·강제추행 16건·강도 3건) ▲2018년 209건(폭력 107건·절도 80건·강간·강제추행 22건) 총 617건에 이른다. 피의자 유형도 정신장애 343명, 정신이상 211명, 정신박약 40명 등의 순이었다.

시민들은 정신질환 의심 주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자치단체와 경찰 등에 요청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의심자가 난폭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인권 등의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보호자와 의사에게만 맡겨 놓은 현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광주에서 10만 2463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사람도 3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흥포해지는 가정폭력...광주 이틀새 11건

### 전처 집 찾아가 방화 기도 아내와 다투다 흥기 협박

광주에서 이틀새 가정폭력 사건이 11건이나 접수되는 등 가정 불화에 따른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현주경찰서 방화예비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께 14년 전 이혼 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전처 집에 찾아가 사업자금을 요구해 휘발유 3~4 l를 뿌리고 전처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5시께에도 광주 서구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남편 B(60)씨가 흥기로 딸 2명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한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툰 아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딸들을 흥기로 위협하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격투 끝에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

탄)을 맞고 체포됐다. 경찰은 알코올의 의존 치료전력이 있는 B씨를 조사 후 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광산구에서도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가 흥기를 집어 든 남편 C(29)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C씨는 이날 새벽 1시 40분께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와 딸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흥기를 집어 든 혐의다.

같은 날 밤 10시 28분께 광주 북구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에게 5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렀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남구에서도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부부싸움을 마린던 아들을 조경용 작은 가위로 위협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광주에선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1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졸음운전 사고 범철 급증

### 겨울철보다 61% 증가 치사율도 15.4% 달해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범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3일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범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겨울철(12~2월)에 비해 6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4~2018년)간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사고는 총 169건 발생해 26명이 숨졌다.

계절별로는 범철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46건), 여름(42건), 겨울

(31건) 순이었다.

범철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4월(18건)이며, 시간대로는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전체 졸음운전 사망자(26명)의 27%인 7명이 숨졌다.

차종별로는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에서 졸음운전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졸음운전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15.4%로, 과속사고 치사율 7.6%의 2배, 전체 교통사고 8.1%의 1.9배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거리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는 등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무허가 김 양식 시설물 설치 완도해경, 어민 7명 적발

완도해양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황모(53)씨 등 어민 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2일 새벽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김 채취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수포함으로 일항하는 황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진도군 밀매도와 완도군 노화읍 외도도 일대에 불법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새마을의 날 49주년 기념식 새마을회원들이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49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생명살림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30대 정비공 숨져

23일 오전 11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산업단지 입구 공장에서 정비공(34)이 옆으로 넘어진 지게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정비공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대어업체 직원인 정비공이 소모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황하나 대질조사는 생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하는 한편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박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른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시비 말리는 경찰관에 욕하고 지폐 던지며 ‘음주 행패’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1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가 경찰서행.

○-23일 전주 완산경찰에 따르면 관공서 주주소란 혐의로 붙잡힌 A(28)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에 1000원짜

리 지폐를 던지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당시 A씨는 인근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상태였고 경찰관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던지지 않아 일단 주주소란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박기성 기자 parkks@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